

# 환경업무는 일원화 되어야 한다

## 1. 일원화 기대

지난 '87년 1월 8일 모 일간신문은 “공해 감시 일원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제까지 환경청과 시·도로 이원화 되어 있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환경청으로 일원화 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부과금 및 행정처분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 환경관리인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뭔가 되어가는구나. 환경행정의 진일보다 하면서 환경업무 일원화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 2. 대동소이한 개정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4월이 다가도록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환경행정의 과도기적 인상만을 깊게 심어주면서 들리는 얘기는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뭔가 잘 되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건만 8월 3일 개정 공포된 환경보전법 시행령 49조(권한의 위임) 규정은 구법 시행령 49조(권한의 위임) 규정과 대동소이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환경청은공단 입주 업체와 대형배출업소등 4천 1백여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나머지 2만 3천여개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결론이다.

## 3. 환경, 환경관리인 현실

혹자는 지도·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이 어느 기관에 주어지는 법이 정한대로 환경관리만 하던 될 것 아니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선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환경청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여섯달 동안 전국 2천 7백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5백 28개의 위반 업체가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비밀배출구 무단방류의 시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아직도 요원하며 그 기업체의 녹을 먹고 사는 환경관리인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 없는 현실이다. 아직도 환경관리인 중에는 사무집기도 못 갖추고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일년 내 전화통화 한 번도 안이루어지는 친구도 있다. 거기다가 화공약품통을 메고 반응탱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친구들 수도룩 하다.

## 4. 일원화 이유

- ① 그 형편없는 지위로 환경청, 시·도, 검찰, 보건환경연구소등 대관업무만 감당하는데만도 힘에 겨운데 어느 세월에 원가절감, 공정개선등을 연구하란 말인가?
- ② 산업은 가속도로 발전하고 시대는 능률화 신속화를 요청하고 있다. 복잡다기화 되어 있는 환경행정은 과감히 수술되어야 한다.
- ③ 국지적 차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환경문제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

여 적극적이고 중앙통제적인 행정기능의 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환경관리 능력과 전문 인력이 풍부한 행정관서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관리인의 자질도 향상될 수 있다.

### 5. 맺는 말

뜻 있는 환경인은 환경청의 환경보호부 승격

과 환경관리인의 사법권 부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새로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입안 과정에 있는 차제에 환경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G회사 S관리인)

- 참고자료 : 조선일보 '87년 1월 8일자
- 환경보전법 시행령 49조
- 주간생활환경 '87년 3월 23일자
- 동아일보 '87년 9월 16일자
- 환경보전 10월 30일호

# 環境問題의 再認識

신 명 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3년>

人間은 누구나 幸福을 향유할 權利와 쾌적한 環境을 가질 權利를 가지고 있으며 物質的 慾求를 충족시키고 知的, 道德的 그리고 社會的 및 精神的 成長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環境의 창조자인 동시에 環境의 형성자이다. 人間 環境의 改善과 向上은 세계 각국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이는 인간 복지의 棼景인 동시에 全世界人들의 業원이며 모든 國家의 義務이고 책임이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無數한 工業化에 기인한 나머지 棼목할만한 物質的 成長을 해왔고, 우리 人間은 이에 부응하여 많은 文化 生活을 누리어 왔던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 주변의 環境汚染에 대한 심각성이 公業화 of 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던 생활 環境의 汚染이라는 副產物과 아울러 현대인은 公害病이라는 치료조차도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環境 汚染을 결코 묵시할 수 없으며, 방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는, 우리 人間 生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장 일변도의 公業化와 산업化로 環境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止揚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은 우리 산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제는 國民 福祉에 중점을 두어 公害를 유발하는 산업들은 억제해야 할 것이다.

環境 汚染과 破壞에 의해 生態系의 平衡이 깨어지면 우리 인간이 直接·間接의 影響에 의해 상당한 被害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次元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生命體는 環境變化가 생기면 變化된 環境에 적응하지 못하면 淘胎되어 버리거나 畸形的 成長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욱 觀心을 가져야 한다. 生態系 保存은 우리의 하나뿐인 地球를 保存 하는 길임은 물론이고 우리 人類가 保護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